

벤츠 1천만원 팔아 100만원 남길 때 현대·기아차 12만~47만원 남졌다

영업이익 브랜드 중 바닥권

지난해 보다 2~3계단 하락

우리나라 대표 완성차업체 현대·기아차 동차의 수익성이 지난해 세계 자동차 브랜드들과 비교해 2~3계단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중·하위권이었던 영업이익률이 지난해 불리한 환율(원화 강세), 중국 등 해외시장 판매 부진, 통상임금 패소 등까지 겹쳐 완전히 최하위 '바닥권'까지 추락했다.

◇3분기 11개 업체 중 7·11위~4분기 추세면 10·11위 '예악' = 28일 업계에 따르면 작년 전체 현대차와 기아차의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은 각 4.7%, 1.2%로 집계됐다. 평균적으로 1000만원어치(매출) 차를 팔아 불과 47만원, 12만원의 이윤(영업이익)을 남겼다는 뜻이다.

2016년과 비교해 각 0.8%포인트, 3.5%포인트 떨어졌을 뿐 아니라 현대·기아차가 모두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이 의무화된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4분기만 따로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현대차의 영업이익률은 3%대(3.2%)까지 밀렸다.

다른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들의 2017년 전체 실적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작년 1~3분기 누적 실적 기준으로만 따져도 현대·기아차의 수익성은 이미 세계 최하위권이다.

각사 공시 자료와 증권업계 조사 등에 따르면 현대·기아차의 지난해 3분기 기준 영업이익률은 각 5.3%, 0.9%로 세계 11개 완성차업체 가운데 7위와 꼴찌(11위)에 머물렀다. 영업이익률이 9%대에 이르는 1, 2위 다임러(벤츠 모기업·승용차 부문만 9.7%), BMW(9.1%)와 비교해 현대차는 거의 절반, 기아차는 9분의 1 수준이다.

나머지 업체들의 이익률은 ▲3위 GM(7.5%) ▲4위 토요타(6.6%) ▲5위 FCA(피아트크라이슬러·6.3%) ▲6위 폭스바겐(6.0%) ▲8위 닛산(4.2%) ▲9위 포드(4.

■ 세계 주요 완성차 업체 영업이익률 비교

업체	2017년 3Q 누적 영업이익률(%)	2016년 영업 이익률(%)	영업이익률 변동(%p)	2017년3Q 순위	2016년 순위	비고
다임러(승용부문)	9.7	9.1	0.6	1	1	EBT기준
BMW	9.1	8.9	0.2	2	2	EBIT기준
GM	7.5	6.1	1.4	3	4	EBIT기준
토요타	6.6	7.1	-0.5	4	3	영업이익
FCA	6.3	5.5	0.8	5	6	영업이익
VW(폭스바겐)	6.0	2.5	3.5	6	11	영업이익
현대차	5.3 (4Q 3.2%) (2017년 전체 4.7%)	5.5	-0.2	7	5	영업이익
닛산	4.2	4.5	-0.3	8	9	영업이익
포드	4.0	5.0	-1.0	9	7	세전이익
혼다	2.9	3.2	-0.3	10	10	영업이익
기아차	0.9 (4Q 2.3%) (2017년 전체 1.2%)	4.7	-3.8	11	8	영업이익

※ 자료 : 각 사 IR자료, 증권업계 등

0%) ▲10위 혼다(2.9%) 순서였다.

전년(2016년) 전체 이익률 순위와 비교하면, 현대차는 5위(5.5%)에서 7위(5.2%)로 두 계단, 기아차는 8위(4.9%)에서 11위(0.9%)로 세 계단이나 내려앉았다.

두 회사의 작년 전체 영업이익률(현대차 4.7%·기아차 1.2%)을 타 브랜드 3분기 누적 영업이익률과 견줘도, 현대차(7위)와 기아차(11위)의 순위에는 변함이 없었다.

더구나 4분기 현대차의 영업이익률(3.2%)은 그나마 3분기까지 현대차 아래에 있던 닛산(4.2%)과 포드(4.0%)보다도 낮은 10위 수준이다. 이런 작년 말 추세가 올해까지 이어질 경우 조만간 현대·기아차가 11개 브랜드 가운데 이익률이 낮은 순서로 뒤에서 1·2위를 차지하는 것도 시간 문제라는 얘기가.

◇높은 인건비 수준에 원화강세·판관비 증가·통상임금 겹쳐 = 이처럼 현대·기아차의 수익성이 경쟁사들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것은, 기본적으로 인건비 수준이 높은 데다 지난해 원화 강세, 해외시장 판매 부진, 통상임금 1심 패소에 따른 중당금 적립 등의 악재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다.

현대차의 인건비 비중은 매출액 대비

15% 수준으로, 경쟁사 폭스바겐(9%대)이나 토요타(6%대)보다 월등히 높다.

여기에 지난해 중국과 미국 양대 시장에서 판매가 뒷걸음치자, 판매 촉진을 위해 딜러에 대한 인센티브, 마케팅 비용 등까지 늘렸다.

기아차의 경우 '통상임금'이라는 폭탄까지 맞았다. 기아차는 지난해 8월 말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패한 뒤 패소가 확정될 경우를 대비해 소급 지급할 급여 등 약 1조원을 3분기에 손실 예상 비용(충당금)으로 처리했고, 이 때문에 작년 3분기 427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그 여파로 작년 전체 기아차의 영업이익(6622억원)도 2016년보다 73.1%나 줄었고, 2010년 이후 8년래 '최소'라는 달갑지 않은 기록을 세웠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올해 최대 과제 중 하나가 수익성 회복"이라며 "중국과 미국 시장에서 SUV(스포츠유틸리티차) 중심의 다양한 신차로 판매를 늘리고, 주요 해외시장별로 권역본부가 자율경영을 통해 판매·생산·재고·손익 등을 통합적, 탄력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정비요금 기준 상향조정 ... 차 보험료 또 오른다

자동차 정비요금 산정기준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도 인상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보험업계, 정비업체가 공동으로 진행한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의 중간결과가 최근 나왔다.

정비공장의 위치와 규모 등에 따라 적정

시간당 공임이 2만5000원~3만3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은 2만8500원이다.

현재 업계에 형성된 시간당 공임인 2만5000원에 견줘 3500원(14%)이 많다.

통상 정비요금이 1000원 오르면 자동차 보험료는 약 1% 인상 요인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준작업시간의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면 보험료가 3.5% 오를 소지가 있다.

표준작업시간 연구용역 결과 적정 작업시간이 기존 작업시간보다 줄어든면 시간당 공임 인상분이 상쇄되기도 한다. 이번 연구용역은 2010년 정부의 정비요금공표제 폐지 결정 이후 정비요금 산정을 둘러싼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됐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지난 27일(현지시각) 호주 빅토리아주 멜버른 파크에서 열린 '호주오픈 후원 계약 조인식'에서 크레이그 타일리(Craig Tiley·왼쪽부터) 호주오픈 조직위원회 CEO 겸 토너먼트 디렉터, 박병윤 기아자동차 고객경험본부장 부사장, 로드 레이버(Rod Laver) 테니스 레전드 선수, 제인 허드리치카(Jayne Hrdlicka) 호주오픈 조직위원회장이 조인식 후 기념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기아차 제공>

기아차 '정현 효과'... 호주오픈 테니스 5년 더 후원

2023년까지 연장 계약

기아자동차가 세계 4대 테니스 대회인 '호주오픈' 대회를 5년 더 후원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정현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4강에 오르는 등 선전해 홍보 효과가 커진 점도 재계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기아차는 27일(현지시각) 호주 빅토리아주 멜버른 파크에서 기아차와 호주오픈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호주오픈 최상위 후원사(Major Sponsor) 계약을 2023년까지 연장하는 '호주오픈 후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2년 첫 후원을 시작한 이후 올해로 17년 연속 호주오픈을 공식 후원한

기아차는 이번 재계약을 통해 2023년까지 무려 22년간 대회 유일한 최상위 후원사로 활약하게 됐다.

기아차 관계자는 "호주오픈과 지난 17년의 여정을 함께한 것과 더불어 후원 계약을 5년 더 연장하게 돼 기쁘다"며 "추후 연장되는 파트너십을 통해 전 세계 테니스 팬들에게 기아차 브랜드의 '젊고 역동적' 이미지를 널리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인식에 참석한 호주오픈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호주오픈과 기아차는 오랜 시간 함께 하면서 성공적 대회 개최와 브랜드 가치 향상 등 놀라운 동반 성장의 결과를 이뤄냈다"며 "2023년까지 긴밀한 동반자 관계가 유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

혔다. 호주오픈 공식 후원사로서 기아차는 해마다 대회기간에 경기장 내 광고판 설치, 대회 공식 차량 전달, 차량 전시, 홍보 부스 운영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쳐왔다. 기아차 관계자는 "호주오픈 후원 첫해 2002년 약 7900만 달러 가치의 홍보 효과를 거둔 것을 시작으로, 작년 2017년 대회에서는 약 5억1000만 달러에 이르는 글로벌 홍보 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기아차는 특히 정현 선수가 활약한 올해 대회의 경우 현장 방문객 수가 75만 명을 돌파하고 글로벌 홍보 효과 또한 작년 대회보다 약 10% 많은 5억5000만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현대차, 국내 대형세단 최초 제네시스 G80 디젤 출시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브랜드는 29일 국내 대형세단 최초로 G80 디젤 모델을 출시하고 판매를 시작했다.

제네시스에 따르면 G80 디젤 모델은 최고출력 202마력, 최대토크 45.0kgf·m의 동력성능을 확보했다. 복합연비는 13.8km/ℓ(2WD, 18인치 타이어 기준)로 가솔린 모델 대비 높은 연비 효율성을 갖췄다.

특히 배출가스 중 질소산화물(NOx) 저감에 효과적인 '요소수 시스템'이 적용돼 국내 대형세단으로는 처음으로 강화된 유로6 배기 규제를 충족했다는 게 제네시스의 설명이다. 아울러 G80 디젤 모델은 차량 내부 흡차음재를 추가 보강하



제네시스 G80

고 소음·진동 저감 기술을 적용해 동급 최고 수준의 정숙성을 확보했다.

구체적으로 차량에 전달되는 진동을 줄여주는 '진동 저감형 토크 컨버터'(CPA)와 주행·정차 등 상황에 따라 엔진 마운트 특성을 바꿔주는 '전자제어식

엔진 마운트'(ECM), 엔진 정보 등을 바탕으로 소음을 상쇄시키는 '실내 소음 저감장치'(ANC) 등이 장착됐다.

G80 디젤 모델의 판매가격은 럭셔리 5170만원, 프리미엄 럭셔리 5700만원이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금 강 버 티 킬

버티컬, 커튼, 블라인드, 홀딩도어, 콤비블스크린, 전동롤스크린, 우드블라인드, 실사롤스크린, 허니콤블라인드의 제작 및 시공

☎062)514-6118, 010-5627-6119

교원 빨간펜 남광주센터

최고의 교육전문가로 성장할수 있는 선생님을 모십니다.
통학독서지도사 kbs미디어 온라인 평생교육원 자격증 취득가능
☎010-3613-3145

양지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야, 토지, 경매, 권리분석

대표 전병양 ☎062)263-2223

제주흑돼지 전문점 꽃담

동구 발삼로 48-1 (법원 뒤편) 제주흑돼지 삼겹살 제주 오겹살 (영업시간 오후3시~)

☎062)233-9992

청학철학원

북구우치로 39-1 (중흥신협옆2층) 작명, 사주, 운세, 궁합, 택일 시험, 승진, 사업, 재물, 직업 부부교습 및 전문 연구원
청학 서광호 ☎010-9866-2332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

초대화랑

동구 중앙로 196번길 15-16 (공동 54-2) 동양화·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062)222-2516, 010-2681-3113

바른글씨교정원

북구 서암대로 186 성지빌딩 3층 전대정문사거리 약림글씨 책임교정원, 학원생 수시모집 교대, 사대, 임용반, 취업반, 강사반 원장 직접 개인지도

☎062)525-9933, 010-8703-3378

으뜸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동시민교회앞 골목 아파트, 빌딩, 원룸, 주택, 상가 토지 전월세 및 매매임대 분양권 상담알선 책임중개 전문
☎062)263-5383, 010-6338-5383

석당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서울표구점

북구 중흥동269-14 (중흥3동주민센터 입구 맞은편) 병풍, 액자, 족자, 표구 일체

☎010-3633-2790

하안나라운동화세탁

북구 우산동 614-10(구.북광주동기소 옆) 운동화·가방·이불 "2컬레부터 수거배달"

☎062)269-4450, 010-4607-5773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토산철학원

북구 두암동 예덴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

대표 이태연 ☎010-4106-5055

내담대구탕·찜

북구 문흥동 954-8번지 대구탕, 해물갈비찜, 아구찜, 전골 단체모임 환영

대표 한혜숙 ☎062)471-5050

금복식당

동구 공동 55-2(카톨릭센터 뒤) 찜탕, 계절 생선매운탕 전문

대표 김용범 ☎062)236-3177

가득

동구 예술의길 31-16 동부고시학원 3층 뷔페백반 전문

대표 전옥희 ☎062)222-0589

국수나무옹봉점

북구 용봉동 1091-4번지 (국민은행 건물내) 모든 메뉴 포장가능, 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

☎062)526-5475, 010-8621-5959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식당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 010-2611-7687

한솔도시락 서영대점

북구 운암동 885-35번지 모든 도시락 포장가능 단체도시락 주문 받습니다.

대표 김용경 ☎062)524-6078, 010-3152-0739

무크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258호 세련된 디자인의 신상품 대량 입고 10%~40% 할인 (일부품목 제외)

☎062)370-9258

고전방

동구 공동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